



#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변화 추이

이태열 선임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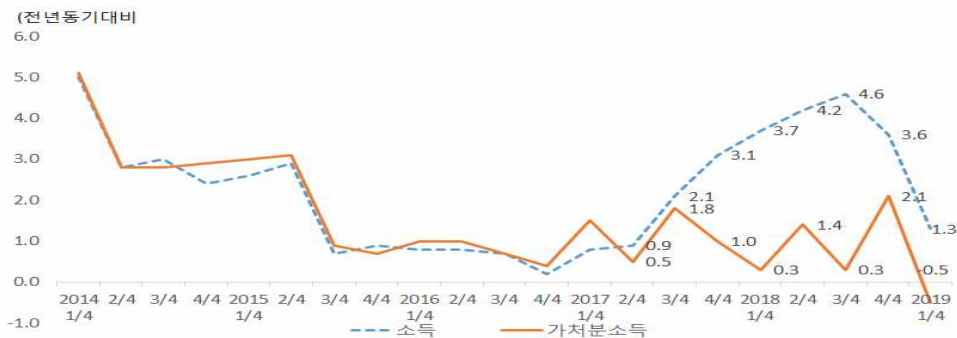
영향

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6년 4/4분기 이후 10분기 동안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. 2017년 4/4분기 이후에는 실질 가계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, 사회보장 비용, 이자 부담 등 비소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내수 기반 약화가 장기화되고 있음. 가계의 경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가계의 비자발적인 부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■ 가계 경제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<sup>1)</sup>(이하, '가처분소득') 증가율이 2019년 1/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함(명목 기준)

● <그림 1>과 같이 2019년 1/4분기 명목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.0%대로 하락하고 실제 구매력을 보여주는 명목 가처분소득 증가율도 -0.5%를 기록하면서 가계 경제가 불황임을 나타내고 있음

<그림 1> 명목 가계 소득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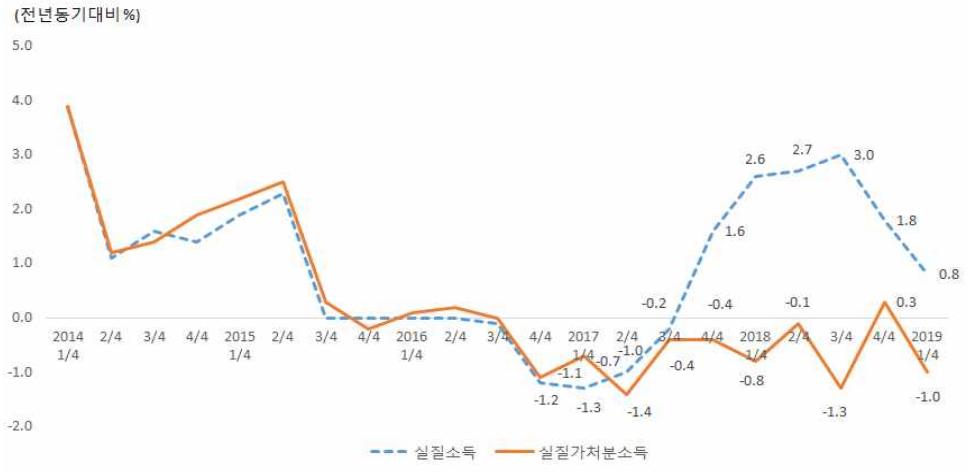
1)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소득에서 조세, 사회보장 보험료 등 비자발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가처분소득과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가처분소득으로 칭함

- 명목 가처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에 따른 불황기였던 2009년 3/4분기 이래 처음 나타난 것임
- 또한 2017년 4/4분기 이후 소득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사이의 괴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

■ 가계 소득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질 기준 지표<sup>2)</sup>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득 추이를 살펴본 결과, 가처분소득의 경우 2016년 4/4분기 이래 사실상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- <그림 2>에 나타난 실질 가계 소득 증가율의 추이를 보면 2016년 3/4분기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4/4분기부터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 다시 둔화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
- 그러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6년 4/4분기부터 실질 가계 소득의 추이와는 관계없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
  -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8년 4/4분기에 일시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0.3% 증가하였을 뿐, 2016년 4/4분기 이후 총 10개 분기 중 9개 분기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

<그림 2> 실질 가계 소득 및 가처분소득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가계동향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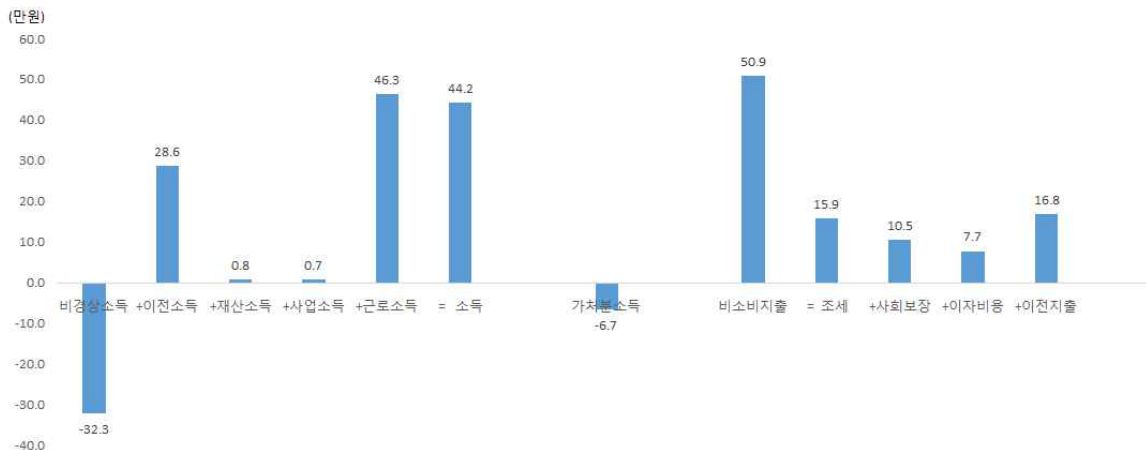
■ 조세, 사회 복지, 이자 비용 등 비자발적인 가계 부담 증가가 소득 증가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소비 또는 저축에 활용 가능한 가계의 실질 경제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- <그림 3>과 같이 2018년 실질 가계 소득은 근로 소득과 공적 보조를 포함하는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2017년 대비 44만 2,000원 가량 증가하였음
  -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은 정체되었으며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비경상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2) 가장 최근 지표인 2015년 기준 실질 지표를 활용함

- 반면, 조세, 사회보장(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등 포함), 이자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2018년 실질 비소비 지출은 2017년 대비 약 50만 9,000원 증가하였음
- 이에 따라 실질 소득 증가보다 비소비 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면서 2018년 실질 가처분소득은 2017년 대비 6만 7,000원 감소하여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3〉 2018년 실질 가계 소득 및 비소비 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액



주: 비소비 지출은 총 7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조세(경상조세+비경상조세), 사회보장(연금+사회보험), 이자 비용, 이전 지출(가구 간 이전 지출 + 비영리단체로 이전)의 5개 분류로 단순화하였음  
 자료: 상등

■ 가계의 경제력 회복을 위해서는 근로 소득, 사업 소득 등 소득 증기도 중요하지만 조세나 사회보장 비용 등 가계의 비자발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-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2016년 4/4분기 이후 2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
  - 가계의 구매력 하락은 소비와 저축 여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종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과 더불어 금융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
  - 특히, 수출까지 둔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내수 경제의 지속적인 위축은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임
- 이미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가계 소득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계 부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계 경제력의 위축이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임 **kiri**